

근 · 현대에 있어서 한 · 중 · 일 삼국의 복식색채 특성 비교

이 지 현* · 김 영 인** · 김 희 연***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 Colors of Korea·China·Japan in the 20th Century

Jee-Hyun Lee* · Young-In Kim** · Hee-Yeo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5. 9. 14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stume colors of modern and present ag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modern China and Japan had quick influx speed of Western culture. Dissimilarly, modern Korea kept conception of colors from Chosun periods that show the high frequency of 'Five Elements Colors' and neutral colors in Red, Yellow and Purple Blue. Today, the costumes of China, Korea and Japan use similar tones of color but each country approached in different selections of achromatic colors; Korean prefers color in Yellow Red, Purple, and Chinese in Green Yellow, Green and Japanese in Purple Blue. Light greyish and pale toned Yellow Red and grayish tone have increased in modern Chinese and Japanese costumes. Also both countries have corresponding assumptions in using color of Red in strong tone. The analysis of color and tone distribution showed that, Japanese costume colors in modern and present times have correlative number of use as in Western culture. Traditionally, Japan has least notion of using 'Five Elements Colors' which only gives minor changes by convergence of Western color culture. In other side, China had developed in color rather than tone compares to Korea and Japan by using many of the Red color of strong, vivid and deep tones which made red distinguishing color of China. Japan continues to use of low chroma colors and became a characteristic in modern and present day, also they use an abundance of color in Yellow Red, Purple Blue. Korea has a higher frequency showing in light, bright tones of color distinctively compares to China and Japan.

Key words: color(색채), costume colors(복식색채), Korea(한국), China(중국), Japan(일본), modern time(근대), present age(현대)

I. 서론

한국·중국·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공통점 외에도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왔으며 유교·불교·도교가 각국 전통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19세기 이후 20세기 초반의 짧은 시간동안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서구문화를 기반으로 한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인터넷의 보급과 활발해진 경제, 문화개방 정책 등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희석시키며 세계화 움직임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라는 특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일은 최근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지역화의 움직임과 함께 비서구사회에서 문화적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진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림으로서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부재하고, 세계 속에서 문화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이며 문화적 특성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혼혈문화로 인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보편적 특질에 기반 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 동아시아 지역문화공동체의 확립과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삼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한 규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복식은 특정 사회의 경제, 문화 및 민족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위문화이며 이 중 복식색채는 특정 국가 또는 문화권의 사상과 이념, 의식, 제도, 관습 등이 시각적으로 기호화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각 문화의 특성을 가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한·중·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오방색이라는 전통적 색채관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를 통해 서구의 색채문화를 받아들인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삼국의 복식색채 중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서구의 색채문화를 수용한 근·현대 이후의 복식색채는 오방색 중심의 전통 색채문화의 변용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삼국의 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규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시각적 기호로 작용하는 복식색채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한·중·일을 중심으로 공통성과 차별성을 규명함으로써 색채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 색채문화의 현대적 변용을 통한 문화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대화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었던 19세기 말 이후 현대까지의 시간적 범위 안에서 전통복식의 양식을 적용하거나 재해석한 근·현대복식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중국·일본의 근·현대 복식 색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색채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에 기반 한 디자인산업 및 다양한 문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근·현대의 한·중·일 복식문화의 배경

1. 근대의 한·중·일 복식문화

1) 근대 한국복식

19세기 중엽 서구와 일본이 포함된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과 조선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조성된 위기는 한국 근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근대화에 의한 복식 개혁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군복, 관복과 같은 남성 제복이 중심이 되었으나 지배층에 한정된 것이었고 서민들은 한복을 입음으로써 계층에 따른 이중적 구조의 복식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복의 개혁이 근대화의 상징으로, 강요에 의해 시작되던 반하여 여성복의 개혁은 남녀평등의식의 확대와 교육의 보급이라는 문화의 사회구조에서 시작된 것¹⁾으로 서구 문화의 수용에 따른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²⁾



<그림 1> 한·중·일 근대복식 이미지

1906년 설립된 여자교육회(女子教育會)는 내외법 폐지, 남녀동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미신타파, 국가 공업화에 관한 문제, 여성 의복 개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신교육의 확대와 새로운 교육제도의 변화는 여성들이 새로운 의복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기회였으며, 동시에 학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던 우리 사회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입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³⁾. 1930년대 인건의 대량 생산, 방직공장과 양장점, 양재학원의 증가 등 기술적,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일반인에게 까지 일상복으로 확대되었다. 양복의 일반화는 지방의 서민층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전통적인 한복과 새로운 양식의 의상이 자연스럽게 혼용되었다. 1940년대는 격동과 전쟁으로 복식문화의 공백기로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었으며 남성은 획일적인 국민복, 여성은 간단복과 몸빼를 착용하였다. 근대는 일제강점기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조선의 전통적 문화에 서구문화가 유입되는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으며 근대복식 역시 전통복식과 양복이 병립하는 등 과도기적 혼란과 새로운 양식의 정착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2) 근대 중국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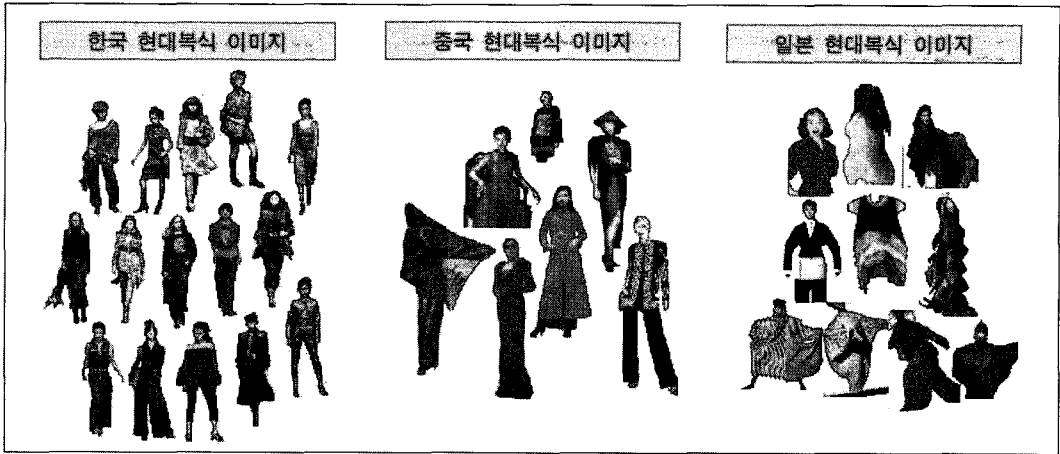
전통 중국사회에서 복식은 황제의 권력 도구로 신분을 구분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구분, 문명과 야만의 구분, 예의바름과 버릇없음의 구분이었다.⁴⁾

따라서 서구화 이후 복식은 개혁과 전통적 가치 간의 논쟁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군의 연이은 패배, 서양의 막강한 힘에 의한 굴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서구의 물질문화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의 혁명세력이나 정치 망명자가 집결하는 장소가 된 일본은 근대 서양문명을 중국에 전하는 창구 또는 다리가 되었다.⁵⁾ 복식도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구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19세기 중국에서 남성의 양복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⁶⁾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여성의 양장 착용은 도덕적 타락으로 비난받았다. 전통에 반대하는 여학생들의 의복 스타일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여성의 난잡함, 표면화된 성적 특성의 강조, 전통적 품행에 대한 거부의 상징으로 공격받았다.⁷⁾ 이러한 배경 때문에 중국 여성들은 서구의 복식문화를 전통복식에 서구적 특성을 가미하여 변형, 절충시킨 스타일로 수용하였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에게 서구와 전통을 섞는 일은 필수적인 단계이었으며, 이는 현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 근대 일본복식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가기 시작한 대개혁이었으며 정치, 경제, 외교, 산업, 문화의 모든 면에 걸친 국가적인 움직임이었으며 일본은 서



〈그림 2〉 한·중·일 현대복식 이미지

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였다. 복식에서도 큰 변화가 생겨났는데, 가장 빠른 변혁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복식에서 나타났다. 1885년 도쿄 여자사범학교의 제복이 양복으로 채택된 이후 서구의 복식이 일반화되면서 기모노 밑에 셔츠와 구두를 착용하는 등 서구와 전통이 혼용되는 형태가 유행하였다.⁸⁾ 러일전쟁 후부터 다이쇼 시대까지는 에도시대 이래의 전통적 관습과 메이지의 서양풍이 혼재하던 시기였다. 여성 대부분의 복장은 기본적으로 기모노를 착용하였고, 소매가 짧아지거나 서양의 투피스와 닮은 투피스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양복의 보급은 지지부진하여 버스 여차장 등 직장여성과 같은 한정된 사람만이 착용하고 있었으나 집안에서는 원피스 같은 간소한 양복이 착용되기 시작하였다.⁹⁾ 관동 대지진 후의 불황이 계속되어 금융 공황시대(1927년)로 이어지며, 쇼와 천황 즉위식이 거행됨으로서 일본은 국력 충실의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해외진출을 목표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의 증대는 생활물자의 부족을 일으켜 국민 생활을 압박하였고 이어 통제 경제가 실시되었다. 이 당시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른 일본의 복식문화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서구문화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근대 일본 복식의 주류는 기모노이며 양복은 정장으로서의 성격을 띄

며 화려하게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외출복을 양복으로 하고 실내복과 작업복으로는 기모노가 중요시 되어 일본인들은 사회생활에서는 양복을, 개인생활에서는 전통복을 고수하는 특성을 보였다

2. 현대의 한·중·일 복식문화

1) 현대 한국복식

1950년대는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절대적인 도움에 의한 재건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전후 군수품과 서양의 원조물자를 통해 여과 없이 들어온 미국 문화와 불행한 현실의 도피처였던 영화는 1950년대 복식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문화」, 「여원」등 여성 교양 잡지의 창간으로 여성 복식의 서구화가 정착되었으며, 패션쇼 개최와 경성방직과 제일모직의 직물 대량생산을 기점으로 양장은 주도적 한국복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년-1970년대는 정부의 집중적인 경제개발계획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저렴한 관리가 편한 합성섬유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량생산의 값싼 기성복 시장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는 수출증가와 경제성장, 해외여행 자유화, 수입자유화와 같은 개방정책에 의해 복식문화에서도 세계화, 다양화, 개성화 경향이 나타나 다수의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가 도입되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시장세분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도 한국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90년대 이후 현재는 글로벌리즘의 대두로 국가나 문화의 차별화가 없는 패션트렌드의 수용과 국제적인 소비와 판매가 활발해졌으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수입과 국내 컬렉션의 활성화로 한국의 패션 문화는 크게 성숙하였다.

2) 현대 중국복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공산주의사회로 변모하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입도록 정부에서 권장하였으며 남녀 모두 마오 수트로 알려진 제복을 입게 되었다. 마오 수트는 하이 네크라인으로 속옷이 남루해도 보이지 않아 노동자에게 적합한 의복으로 이와 유사한 색상의 모자도 착용하였다. 농민층은 어두운 파랑의 상의와 바지, 시민층은 회색, 인민군은 녹색 등 색상으로 차이를 두었으며, 포켓의 수로 계급의 차이를 두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남녀는 면혼방의 헐렁한 자켓과 바지를 입었고, 젊은이들은 권력의 상징인 군복을 동경하여 그것과 유사하게 입고 다녔다¹⁰⁾. 모자에는 중공을 상징하는 빨간 별을 장식하였고 팔에는 빨간 완장을 달았으며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적어 넣어 조직마다의 특색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 가방, 녹색 신발을 착용하였는데 이 당시 복식은 중국 복식사에서 가장 획일화된 의복을 착용하던 시기였다¹¹⁾. 모택동 집권 이후 중국인들의 복색은 청색, 회색 카키색 일색으로 바뀌어갔는데¹²⁾ 이 시기에도 붉은색은 혁명의 열정을 표현하는 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색이 되었다.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과 개방에 의해 자유로운 복식 산업의 환경이 이루어졌으며, 「복경시장」이란 복식잡지가 발간되었다. 중국 대표 복식으로서 치파오의 지위가 복원되어 국민 내방 시 중국 여성 대표, 통역, 수행원들은 치파오나 아오를 착용하였다. 그

러나 치파오가 관측의 목적으로 상업홍보 및 유흥 및 오락장소나 호텔의 여성 근무자들에 의해 입혀지면서 고체도의 색상, 트임이 높고 가공이 정밀하지 못한 저급한 이미지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개방화 이후 나타난 전통으로의 복귀현상은 결혼예복으로 전통적인 붉은 신부복식이 부활되어 붉은 치파오나 붉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5년경 중국 국적의 디자이너가 등장하면서 중국제의 의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경제개발과 발맞춰 조금씩 이루어져 개방화 이후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작품이 대상을 받는 등 중국복식의 재해석은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¹³⁾

3) 현대 일본복식

1946년이 되면서 양복에 눈뜨기 시작한 일본 여성들의 양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양재학교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1959년에는 새로운 합성섬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의복의 소재가 풍부해졌다. 평면재단에 의존했던 일본에 서양의 입체적 재단법이 도입된 것은 1953년이었으며 이후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일본출신 파리 디자이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⁴⁾ 일본의 전통 복식은 1960년대 하나에 모리가 일본 패션을 유럽에 소개한 것과 1970년대 초 다카다 겐조가 기모노의 직선적 재단과 오비, 소매 등을 응용한 작품을 파리 컬렉션에 선보인 것을 계기로 서양패션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였다¹⁵⁾. 1980년대에 새로운 패션세계와 예술성 및 조형성을 부각시킨 이세이 미야케, 레이 카와쿠보, 준코 코시노, 요지 야마모토 등이 세계적인 일본디자이너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전통복식을 재해석함으로써 서구와는 다른 재단법과 복식구조를 통해 서구 패션에 충격을 주었다. 일본 디자이너들은 일본 전통복식의 독특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복식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동양사상에 기인한 일본의 문화와 미의식을 탐구하고 분석하여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세계를 펼쳐왔다.¹⁶⁾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근·현대의 한·중·일 복식색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양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1940년대를 근대로 정하였고, 전후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양식의 주체적 수용이 시작된 전후 1950년대 이후 2000년대 현재까지를 현대로 규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자국의 전통복식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을 콘셉트로 하는 한·중·일 여성복식의 색채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현대 한·중·일 복식색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시대별 박물관 도록 및 웹 사이트상의 박물관 유물 이미지, 잡지의 복식 이미지를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는 정확한 색채의 재현보다는 복식의 색상 및 색조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시대적 특성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색채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60개의 색채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한국의 근·현대 복식색채는 국립민속박물관¹⁷⁾, 숙명여대 박물관¹⁸⁾, 고려대 박물관¹⁹⁾, 이화여대 박물관²⁰⁾의 도록 사진자료 및 홈페이지의 유물 이미지(676색)와 「한국패션 100년」²¹⁾의 패션사진(45색), 「월간 멋」의 박창치, 이신우, 설윤형, 진태욱 등의 작품사진(99색), 이신우, 이영희의 작품집 사진 자료(77색), 2000 S/S-2003 F/W S.F.A.A. 및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제시된 설윤형, 이영희, 진태욱, 이상봉 등의 사진자료(300색)를 중심으로 색채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중국 복식색채는 「The Way of Dress」²²⁾, 「The Cheongsam」²³⁾, 「Les Annes Mao」²⁴⁾, 「Chinese Woman and Modernity」²⁵⁾, 「Traditional Chinese Clothing」²⁶⁾, 「China Qipao」²⁷⁾,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²⁸⁾과 현대 중국 디자이너인 Wu Hai Yan²⁹⁾, Zhang Zhaoda³⁰⁾, Chris Lui³¹⁾, Yvoone Ding Xue Lian³²⁾, Coco Ma³³⁾ 등을 중심으로 421색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일본 복식색채는 「名品選」³⁴⁾, 「世界の伝流服飾」³⁵⁾, 「Japanese Beauties」³⁶⁾, 「Japan Design」³⁷⁾, 「Visions of the Body」³⁸⁾, 「Issey Miyake」³⁹⁾⁴⁰⁾⁴¹⁾에서 데이터 442색을 수집하였다. 색채 데이터는 해당 도록,

작품집, 잡지 등의 이미지 자료를 측색기로 측색하였으며 의복 외에도 문양 및 스카프, 모자, 허리띠 등을 포함하여 색채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색채샘플은 Minolta CM-503i와 Macbeth Color Eye 7000를 사용하여 표준광 C와 표준관측자 2도 시야에서 측색하였으며 CIE L*a*b*값과 먼셀 H V/C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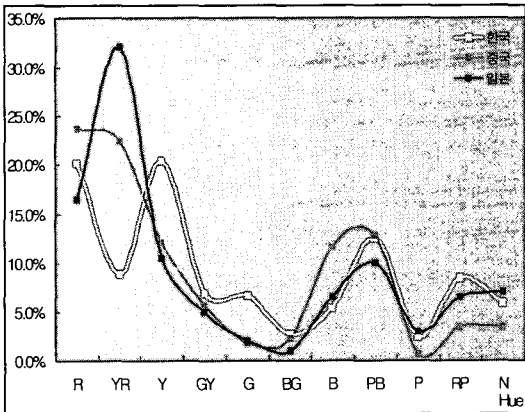
Ⅳ. 근·현대의 한·중·일 복식 색채의 특성

1. 근대의 한·중·일 복식 색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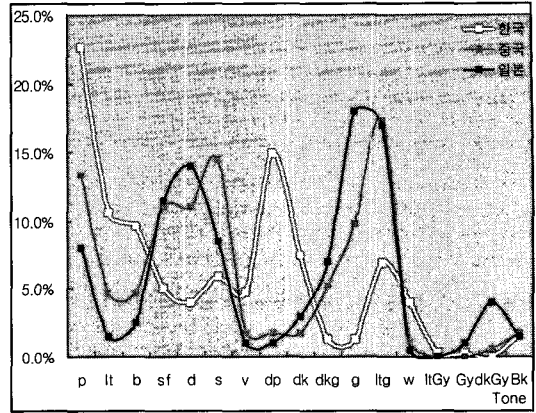
1) 근대의 한·중·일 복식의 색상 분석

근대 한국복식의 색상을 분석한 결과 Y(20.4%), R(20.2%), PB(12.5%), YR(8.8%), RP(8.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중 Y와 R은 유사한 빈도를 보여 전체의 40.6%를 차지하였다(그림 3). 이 중 가장 특징적인 색상인 Y는 전통복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색상으로 한국전통의 자연주의 색채관에 따른 소색(素色)의 사용과 관계가 있으며⁴²⁾ 근대 한국복식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편 합성염료의 등장과 함께 R, Y, PB 등 색감이 강조되는 색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통 여성복식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무채색의 경우 근대 서양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사용빈도가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근대 중국복식의 색상 빈도는 R(23.7%), YR(22.5%), PB(12.7%), Y(12.1%), B(11.6%) 순으로 나타나 한국에 비하여 R, YR, B색상의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3). R, YR, PB는 전통적인 오방색의 사용과 관계가 깊으나 B의 경우 근대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특징적으로 나타난 색상이며 가장 빈도가 높은 R색상은 중국인들의 붉은 색에 대한 전통적이며 지속적인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대 일본복식 색상은 YR(32%), R(16.5%), Y(10.5%), PB(10%), N(7%)의 빈도를 보였으며 YR색상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그림 3). YR색상은 주홍, 차색(茶色) 등으로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에 많이 사용되는 색상으로 근대복식에도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근대 한·중·일 복식색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인 색상은 YR과 Y이다. Y색상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YR은 근대 일본복식의 가장 특징적 색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세기 이전 조선과 일본의 전통복식의 색채특성과 유사한 경향으로 근대에도 전통색채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이나 전통 복식색채의 변화를 의미하는 색상으로는 한국의 G, B, RP, 무채색, 중국의 Y, B, 무채색, 일본의 B, 무채색이다. G, B는 간색으로 한·중·일 전통복식에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던 색상이었으나 근대에는 사용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20- 30년대 서구문화권에서 아르데코 등의 영향으로 에메랄드 블루, 비취 그린 등이 유행했던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잡색으로 여겨져 한·중·일 삼국 모두 여성복식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무채색의 사용은 교복, 유니폼 등 근대화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색상이라 할 수 있다. 근대 한·중·일 복식의 색상 분포를 비교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중국과 일본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색상사용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 일본과 달리 서구복식문화의 수용에서 차이를 보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 일본의 주체적 근대화 운동과 서구문화의 수용과 달리 일제강점기 하의 사회·문화적 암흑기를 겪었던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근대 한·중·일 복식의 색상분포도



<그림 4> 근대 한·중·일 복식의 색조분포도

2) 근대의 한·중·일 복식의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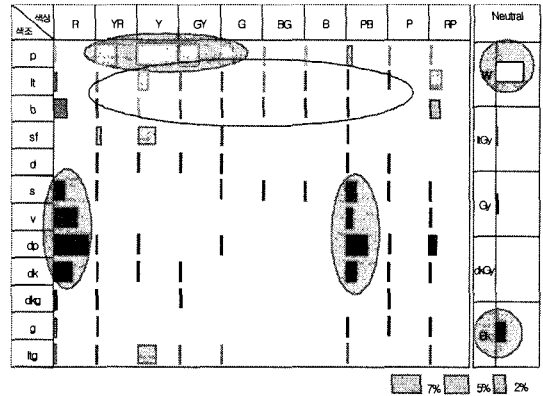
근대 한국복식의 색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색조는 p(22.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dp(14.9%), lt(10.7%), b(9.6%), ltg(6.9%), s(5.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무채색의 경우 흰색, 검정의 증가가 특징적이었으며 회색 계열의 출현 빈도는 낮은 편이었다. 근대 중국복식의 색조는 ltg(17.3%), s(14.5%), p(13.3%), sf(11%), d(11%)의 순으로 나타나, 고명도·저채도인 ltg색조 빈도와 중명도·고채도인 s색조의 빈도가 높았다(그림 4). ltg, p, sf, d의 색조가 많이 보이는 것은 dkg, dp, s색조를 많이 쓰던 전통색채와는 차별화되는 경향으로 근대화에 따른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근대 일본복식은 g(18.0%), ltg(17.0%), d(14.0%), sf(11.5%), s(8.5%)의 빈도로 나타나, 중고명도에 저채도와 중채도로 집중되는 색조 분포는 당시 서구문화의 유행색을 많이 반영한 복식색채의 사용이 증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일 근대복식의 색조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4>와 같이 한국은 p, lt, dp색조, 중국은 s, ltg색조, 일본은 g, ltg, d색조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빈도의 차이를 다소 보이기 는 하나 색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조 분포를 드러낸 반면 한국의 경우 색조 분포의 차이를 보였

다. 이 역시 한국이 중국, 일본과 달리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제한적이며 강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쳤던 역사적 배경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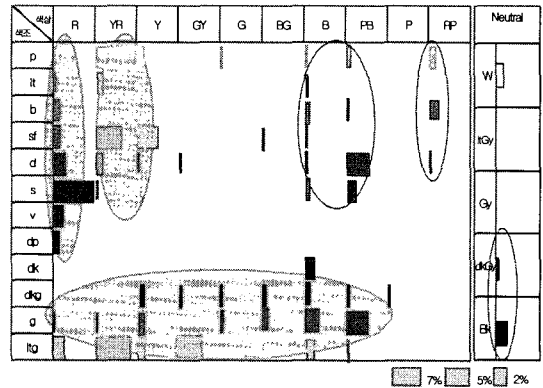
3) 근대의 한·중·일 복식의 색상/색조분석

근대 한·중·일 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분석한 결과 근대 한국복식은 Y색상의 p(9.6%)색조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R색상의 dp(7.5%)색조, PB색상의 dp(4.3%)색조, 흰색(4.0%)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YR, Y, GY, G 색상은 p색조를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YR에서 P색상에 이르는 다양한 색상이 lt, b색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한국복식은 색상과 색조가 다양해지며 점차 오방색 중심의 전통 색채관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정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대 여성 신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생겨난 학생복 및 신지식·신문화의 상징색이었던 검정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져 여성복에 점차 사용되는 빈도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⁴³⁾. 근대 중국복식은 R색상의 s(11%)색조, YR색상의 ltg(6.9%), p(6.4%)색조, PB색상의 d(4.6%)색조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고채도 R색상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6>. 전통 중국복식에서 선호되던 v, dp, dk색조의 PB가 저채도 변화되었는데, 이는 관념적으로 선호되던 색채가 근대화의 영향에 의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일본복식 색채는 YR색상의 ltg(10.5%), p(6.5%), sf(5%)색조, R색상의 s(5%)색조 순으로 한국·중국과 달리 중고명도의 YR색상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그림 7>.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본의 전통복식색채로 언급되었던 차색(茶色)의 선호⁴⁴⁾가 근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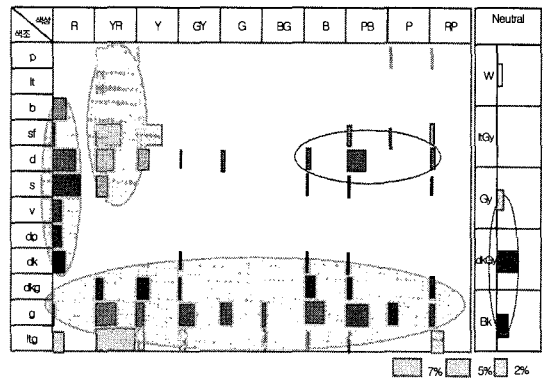
전체적인 복식의 색채 경향을 비교해 볼 때 근대 중국과 일본은 색상과 색조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⁴⁵⁾인 전통 색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일본이 근대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색채의 수용 측면에서 한국에 비하여 개방적이었고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5> 근대 한국복식의 색상/색조 분포



<그림 6> 근대 중국복식의 색상/색조 분포



<그림 7> 근대 일본복식의 색상/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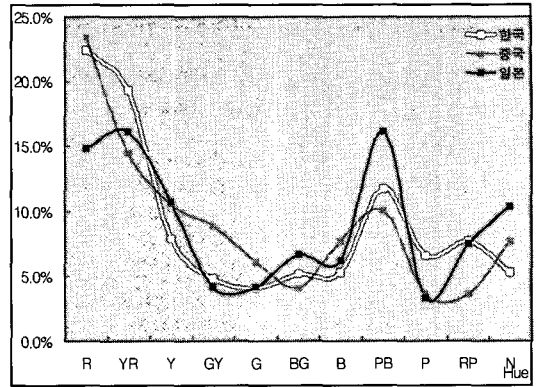
2. 현대의 한·중·일 복식 색채 특성 분석

1) 현대의 한·중·일 복식의 색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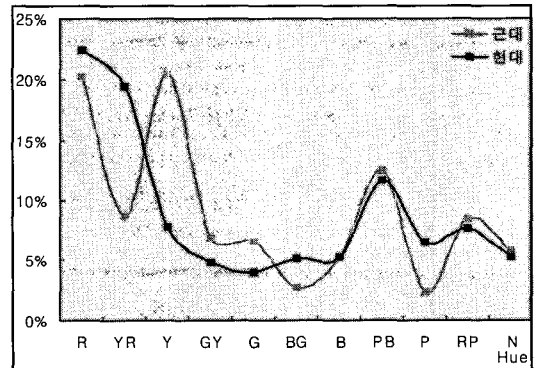
현대 한국복식의 색상을 분석한 결과 R(22.4%), YR(19.4%), PB(11.7%), Y(7.8%), RP(7.7%), P(6.6%), B(5.2%), N(5.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8). R과 PB는 근·현대 모두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YR색상은 근대에는 빈도가 낮았으나 현대복식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P색상은 근대와 달리 현대에는 그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또한 근대의 주요 복식색상이었던 Y색상이 특징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과 무채색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Y색상의 감소는 조선이후 근대까지 지속된 소색선호의 전통이 현대복식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 중국복식의 색상은 R(23.4%), YR(14.5%), Y(10.5%), PB(10.1%), GY(8.9%)의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8). 중국은 근대와 현대의 색상분포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이 근대에 서구문화를 비교적 빨리 수용한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0). 중국복식의 가장 특징적인 색상인 R색상은 근대이후 현대까지 높은 빈도를 보여 지속적으로 선호되는 색상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복식은 GY색상에서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문화혁명기의 마오 스타 및 군복 형태의 의복 등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 일본복식 색상은 YR·PB(16.1%), R(14.9%), N(10.3%), RP(7.4%)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중국에 비하여 PB색상과 무채색에 대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일본 역시 근·현대복식의 색상분포가 YR색상을 제외하면 비슷한 분포로 볼 수 있으며, BG, PB색상, 무채색은 그 사용빈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무채색의 경우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무채색을 중심한 재패니스 룩 특성과 젠 사상에 의한 전통적 색채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중·일 복식 색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상분포를 보였다. 한국은 삼국 중 YR, P색상의 사용에서 특징적이었으며 중국은 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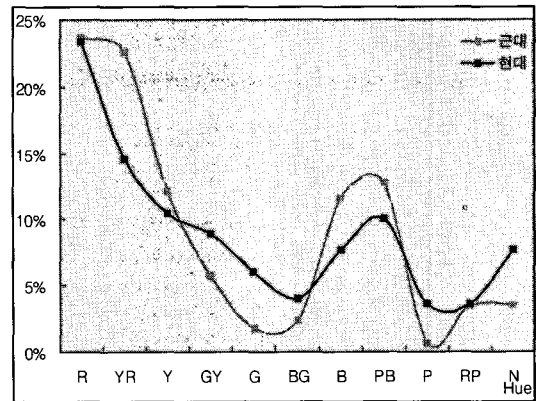
G색상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였고 일본은 PB,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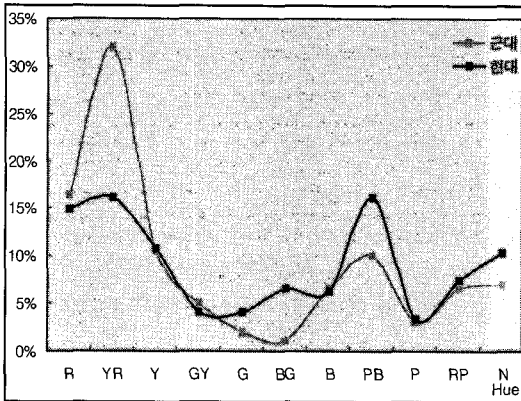
〈그림 8〉 현대 한·중·일 복식 색상 분포도



〈그림 9〉 근·현대 한국복식의 색상 분포도



〈그림 10〉 근·현대 중국복식의 색상 분포도



〈그림 11〉 근·현대 일본복식의 색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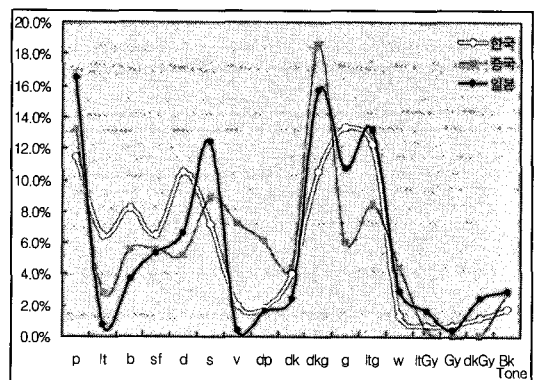
채색의 사용에서 차별적 특성을 보였다. 한·중·일 모두 R과 YR, PB색상의 선호를 보였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 선호색상인 R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한국과 중국에서의 사용빈도가 더 높았으며, PB색상은 일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대 한·중·일의 복식 색상은 빈도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삼국이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여 나라 별 색상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의 한·중·일 복식의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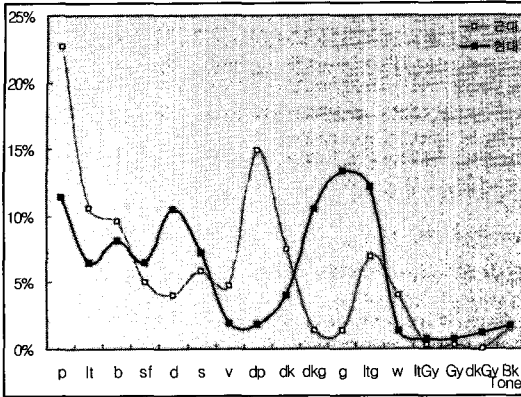
현대 한·중·일 복식의 색조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2〉과 같다. 한국복식의 색조는 전체적으로 g (13.3%) 색조를 중심으로 저채도 영역인 ltg (12.2%), p (11.5%), d (10.5%)·dkg (10.5%)의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b, s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 복식색채는 채도가 낮아지면서 ltg, g, dkg의 색조 영역이 확대되었고, 근대가 p, lt, b 색조 영역이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에는 p와 sf 영역으로 나뉘어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어 현대 한국 복식색채의 색조는 근대보다 밝거나 선명한 색조 영역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3〉). 현대 중국복식의 색조는 dkg (18.5%), p (13.3%), s (8.9%), ltg (8.5%), v (7.3%)의 빈도로 저채도와 고채도의 색채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그림 12〉). 특히 v, dp 색조의 사용은 두드러진 특성으로 한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이는 중국인의 강렬한 색에 대한 선호가 전통적

으로 계속되며, 합성색의 사용 및 염료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색상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 일본복식의 색조는 p (16.5%), dkg (15.7%), ltg (13.2%), s (12.4%), g (10.7%)의 빈도를 보여, 저채도 중심의 색조와 s 색조의 색채사용이 병행되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12〉). 일본은 한·중·일 삼국 중 가장 근·현대의 색조 분포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5〉). 현대 일본복식의 색조는 근대에 비하여 p, dkg 색조가 증가하고 sf, d, g 색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p, dkg 색조와 같이 색감이 드러나지 않는 저채도와 s 색조와 같이 강렬한 고채도의 영역으로 양분되는 색조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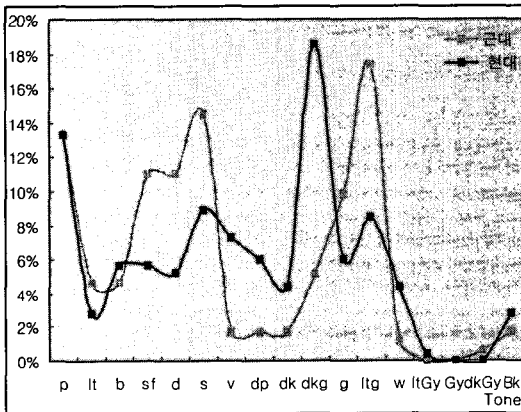
앞서 분석된 현대 한·중·일 복식의 색상이 유사한 특징을 보인 것과 달리 색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복식의 색조가 저채도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 것과 달리 중국은 저채도와 고채도인 v 색조의 사용이 많은 특성을 보였으며, 일본의 색조는 저채도 중심의 색조와 고채도의 사용이 병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현대 한·중·일 복식 색조는 전체적으로는 p, ltg, dkg 색조가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부분적으로 한국은 g, d 색조, 중국은 s, v 색조, 일본은 s 색조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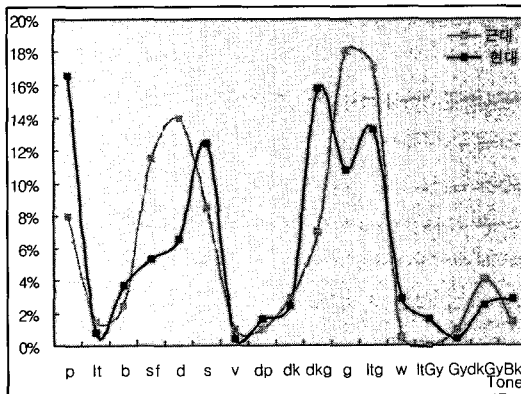
〈그림 12〉 현대 한·중·일 복식의 색조분포도



<그림 13> 근·현대 한국복식의 색조분포도



<그림 14> 근·현대 중국복식 색조 분포도



<그림 15> 근·현대 일본복식 색조 분포도

3) 현대의 한·중·일 복식의 색상/색조 분석

현대 한국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가 높았던 영역은 dk, dkg, g, ltg로 전체 색상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16). 특히 GY, G, BG, B 등의 색상은 저채도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R색상은 전 색조 영역에서 고른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색상으로 근대에 이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색상으로 나타났다. 근대에 s, dp색조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PB색상은 현대에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아졌으며 다른 색채와 마찬가지로 g색조를 중심으로 채도가 낮아진 특성을 보였다. B, RP색상은 v, dp색조를 제외한 전 색조영역에 고루 분포되었고, 무채색의 증가는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근대에 비해 다양하게 사용이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 중국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분석한 결과 R색상의 v(5.6%), s(4.8%), dp(4.4%) 색조가 전체 색상/색조 중 14.4%를 차지하여 중국민족의 R색상에 대한 지속적 선호를 알 수 있다(그림 17). 또한 한국과 같이 다양한 색조영역의 B, PB색상이 나타났으나 RP색상은 빈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현대 일본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색채는 PB색상의 p색조(6.6%)였고 YR색상의 ltg색조(5.8%), R색상의 s색조(5.4%), BG색상의 dkg색조(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YR색상의 ltg색조는 일본 복식문화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색채이며, BG색상의 dkg색조는 한국·중국과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현대 일본 복식의 특징적인 색채로 볼 수 있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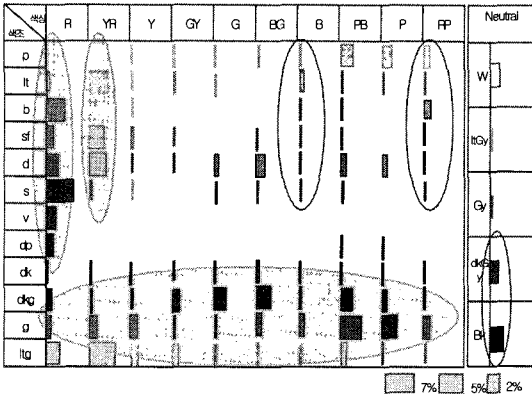
현대 복식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 s색조의 R색상은 한·중·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색채로 R색상은 저채도가 선호되는 다른 색상영역들과 달리 s, v의 고채도가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한·중·일 삼국의 복식색채에 나타난 색상의 유사성 및 색조에서의 차별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복식 및 색채 트렌드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이를 적용하는 현대 패션의 유행색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근·현대 한·중·일 복식색채의 유사성과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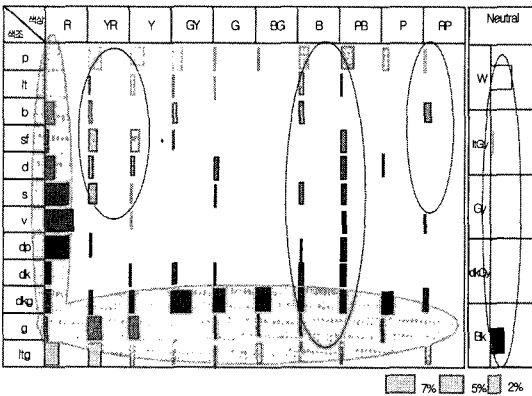
근대 한·중·일 복식색채의 분석결과 한국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성으로 서구문화의 유입이 제한적이었으며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조선복식의 관념적 색채 특성이 근대 복식색채에도 유지되어 오방색과 소색을 중심으로 한 R, Y, PB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색조 면에서도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다양한 색상의 lt, b색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색조의 선호는 세계적인 유행트렌드를 수용하고 있는 현대 복식에서도 나타나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한국적 색채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달리 근대 중국과 일본의 복식색채는 ltg, p색조의 YR, g색조의 PB 등 저채도 영역의 색채 증가, s색조의 R색상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이 중 저채도 영역의 색채와 s색조의 R색상은 현대 복식색채의 특성으로도 나타났다.

2차 대전 후 산업화, 세계화의 경향을 보이며 서구문화의 자발적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한국·일본과 조금 늦게 서구문화를 수용한 중국은 공통된 유행트렌드를 받아들임으로써 현대에는 유사한 복식색채 경향을 보였다. 색상 측면에서 한국은 YR, P 색상, 중국은 GY, G색상의 사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은 PB와 무채색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중·일 모두 R과 YR, PB색상의 선호를 보였는데 R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한국과 중국에서의 사용빈도가 더 높았으며, PB색상은 일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복식색채는 색상에 비하여 색조 면에서 한·중·일 삼국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채도가 낮아지면서 p, ltg, g, dkg의 색조 영역이 확대되는 공통적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이 g색조의 빈도가 높고 중국, 일본은 dkg색조의 빈도가 높아 더 어둡고 탁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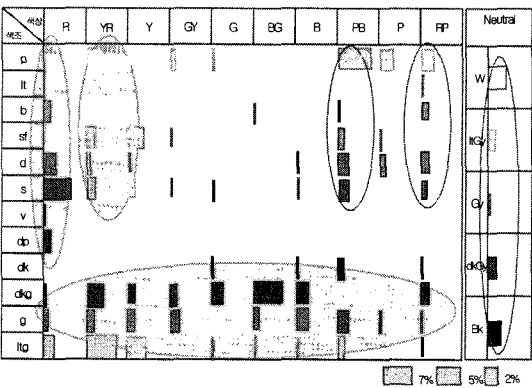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저채도의 색채를 선호하는 일본의 경우 근·현대 색조의 변화가 가장 적어 유행색을 받아들여더라도 일본적 색채이미지가 일관되게 나타나



<그림 16>현대 한국복식의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17>현대 중국복식의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18>현대 일본복식의 색상/색조 분포도

는 특성을 보였으며, 중국의 경우 서구 유행트렌드의 수용 외에도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고채도의 R색상을 근·현대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특징적 색채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근대화 과도기에 주체적인 서구문화의 수용이 어려웠던 한국은 근·현대 복식의 색상과 색조 면에서 일관된 색채 특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인지되는 한국적인 색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p, lt, b색조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이 연구는 근·현대의 한·중·일 복식에 나타난 색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근대 중국과 일본이 서구문화의 유입 속도가 비교적 빨랐던 것과 달리 한국복식은 조선의 관념적 색채관이 근대에도 유지되는 특성을 보여 오방색과 소색을 중심으로 한 R, Y, PB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현대복식은 한·중·일이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YR, P색상, 중국은 GY, G색상, 일본은 PB, 무채색의 사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근대 중국과 일본 복식은 ltg, p색조의 YR, g색조의 PB 등 저채도 색채 증가, s색조의 R색상 선호의 공통점을 보였다. 일본은 근·현대복식의 색상 및 색조분포가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한·중·일 삼국 중 오방색에 의한 관념적 색채의 사용이 가장 적었던 나라로 서구색채문화의 유입에 따른 변화가 한국과 중국에 비하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색조보다는 색상의 측면에서 한국, 일본과 차별화되었는데 s, v, dp 색조의 R색상의 높은 빈도는 빨강을 중국의 특징적 색채로 인식하게 했다. 일본은 근·현대 지속적인 저채도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색상에서는 YR, PB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한국은 색상보다는 색조 측면에서 중국, 일본과 달리 lt, b색조의 빈도

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가시적인 문화의 기호로서 작용하는 색채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복식색채 역시 작가는 착용자의 이미지를 크게는 민족, 사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한·중·일의 근·현대 복식색채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삼국의 색채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적 색채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색채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한국적 색채를 활용한 디자인산업 및 다양한 문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46.
- 2) 이지현 (2005).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과 문화기호론적 해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 31.
- 3)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2002). 앞의 책, p. 46.
- 4) Steel, V. & Major, J. S. (1999). *China Chic: East meets West*. Yale University Press, pp. 17-18.
- 5) 李素楨 (1999). 日中文化比較研究, 동경: 文化書房博文社, pp. 196-204.
- 6) Harrison, Herrietta (2000). *The Making of the Republican Citizen*. Oxford: Oxford Univ Press, pp. 50-51.
- 7) Sun Lung-kee (1997). The Politics of Hair and Issue of the Bob in Modern China. *Fashion Theory* 1 no.4, pp. 353-366
- 8) 김세나 (2002). 일본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 12.
- 9) 井筒雅風 (2004). 일본여성복식사, 서울: 경춘사, pp. 155-156.
- 10) 안병찬 (1978). 중공,중공인,중공사회. 서울 : 다락원, p. 154.
- 11) Bao Mingxin (1999). 중국의 복식.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7호, p. 735.
- 12) Clair, Roberts (1997). *The Way of Dress, Evolution & Revolution: Chinese Dress 1700-1990s*. Sydney: Powerhouse Publishing, p. 22.
- 13) 성희진 (2001). 근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집변에 따른 전통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 118.
- 14) 조규화 (1985).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p. 148.

- 15) 정연자 (1993).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p. 221.
- 16) 황혜란 (2003). 현대패션과 텍스타일에 나타난 저패니즘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스타일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 1.
- 17)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 2천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18) 숙명여대 박물관 (1993). 숙명여대 박물관 도록. 서울: 용지인쇄.
- 19)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록: 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집. 서울: 삼화인쇄.
- 2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담인 복식미술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1) 신혜순 (1995). 한국패션 100년. 서울: 한국현대대상 박물관.
- 22) Clair, Roberts (1997). 앞의 책.
- 23) Clark, Hazel (2000). *The Cheongsam*.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24) Bajon, Jean-Yves (2001). *Les Annes Mao*. Les Editions du Pacifique.
- 25) NG Chun Bong 외 3인(1996). *Chinese Woman and Modernity*. Hong Kong: Joint Publishing.
- 26) Garrett, Valerie M. (1987). *Traditional Chinese Clothing*. Hong Kong: Oxford Univ Press.
- 27) Yuan Jieying (2000). *China Qipao*. Beijing: Jing Mei Printing Co. Ltd.
- 28) Zhou Xun & Gao Chunming (1987).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Hong Kong: Commercial Press.
- 29) Wu Hai Yan. 자료검색일 2004. 10. 19, <http://www.china-pictorial.com/chpic/htdocs/rmhb/english/e2001-1/wuhaiyan.htm>
- 30) Zhang Zhaoda. 자료검색일 2004. 10. 19,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4-03/30/content_1390986.htm
- 31) Chris Lui. 자료검색일 2004. 10. 19, http://english.people.com.cn/200409/23/eng20040923_158019.html
- 32) Douglas Bullis (2000). *Fashion Asia*. New York: Thames & Hudson, p. 194.
- 33) Douglas Bullis (2000). 앞의 책. pp. 190-199.
- 34) Bunka Gakuen Costume Museum (2003). 名品選. Kowa Printing Co. Ltd.
- 35) 文化學園服飾博物館 (2001). 世界の伝流服飾. Traditional Costumes of the World.
- 36) Gross, Alex (2004). *Japanese Beauties*. Taschen.
- 37) Dietz, Matthis & Monninger, Micheal (1992). *Japan Design*. Taschen.
- 38) Shinji Kohmoto 외 5인 (1999). *Visions of the Body: Fashion or Invisible Corset*. Kyoto: Nissha Printing Co. Ltd.
- 39) Holborn, Mark (1995). *Issey Miyake*. Taschen.
- 40) Penn, Irving (1988). *Issey Miyake*. New York Graphic Society Books.
- 41) Issey Miyake (1999). *Making Things*. Scalo.
- 42) 이지현 (2005). 앞의 책. p. 71.
- 43) 이지현·김영인 (2006). 한국복식의 색채특성과 문화기호적 해석에 관한 연구(1). 복식 56(2) pp.59-60
- 44) 김영인 외 5인 (2004). 한·중·일 색채의 기호학적 비교 분석과 색채공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1). 한국 색채학회지, 18(1), pp. 97-111.
- 45) 김영인·이지현 (2006). 앞의 책.